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야스(255440)

하드웨어/IT장비

요약

기업현황

시장동향

기술분석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주)NICE디앤비

작성자

이예한 연구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2-13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스(255440)

대형 패널용 장비 양산 경험을 보유한 OLED 증착장비 전문기업

기업정보(2021/03/11 기준)

대표자	정광호
설립일자	2002년 04월 10일
상장일자	2017년 09월 29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주요제품	OLED 증착시스템, OLED 증착원

시세정보(2021/03/12 기준)

현재가	12,950원
액면가	500원
시가총액	1,691억원
발행주식수	13,058,000주
52주 최고가	16,400원
52주 최저가	7,110원
외국인지분율	0.72%
주요주주	
정광호 외 3인	46.59%
엘지디스플레이	15.32%
자사주	0.49%

■ 엘지디스플레이의 대형 패널용 OLED 증착장비 독점 공급업체

주식회사 야스(이하 동사)는 2002년 4월 설립 이후 유기 발광 다이오드(Organic Light-Emitting Diode, 이하 OLED)의 증착시스템 및 증착원과 같은 증착장비를 전문적으로 제작 및 납품하고 있다. 동사는 2010년 주요 고객사인 엘지디스플레이에 증착 공정용 장비를 납품하면서 매출이 급격히 성장하였고, 양산 효율화 제고를 위한 장비 개선 등의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현재 경쟁업체가 소수인 OLED 증착장비 시장 내에서도 대형 패널용 장비에 특화된 동사의 제품은 중소형 패널용 장비를 주력으로 하는 경쟁업체와 차별성을 갖고 있다.

■ OLED 수요 증가로 인한 디스플레이 시장 성장세

현재 OLED는 중소형 패널 부문에서 액정 디스플레이(Liquid Crystal Display, 이하 LCD)를 거의 대체해 가고 있으며, 프리미엄급 디스플레이의 수요 증가에 따라 대형 패널 또한 OLED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이 OLED 산업을 COVID-19 극복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지정하면서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의 설비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형 패널 부문에서 OLED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대형 패널용 OLED 증착장비 양산 경험을 보유한 동사 또한 일정 수준의 실적 수혜가 전망된다.

■ 설비 투자 지연에도 엘지디스플레이와 추가 장비 공급계약 체결

동사는 2020년 9월 주요 고객사인 엘지디스플레이와 98억 원(국내 공장), 85억 원(중국 공장) 규모의 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 거래처들의 설비 투자 지연으로 인해 매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추가적인 장비 공급계약 체결을 포함한 2020년 9월 기준 341억 원 규모의 수주잔고가 매출실적으로 전환될 경우 실적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7	865.5	4.3	177.5	20.5	162.4	18.8	-	-	18.3	1,390	8,250	19.6	3.3
2018	1,845.1	113.2	442.1	24.0	360.3	19.5	29.2	19.9	68.6	2,775	10,849	5.6	1.4
2019	868.5	-52.9	125.5	14.4	163.2	18.8	11.2	7.2	42.1	1,250	11,593	15.7	1.7

기업경쟁력

대형 패널에 특화된 증착장비 전문

- 중소형 패널용 장비를 주로 공급하는 경쟁업체 대비 대형 패널용 장비에 대한 다년간의 양산 경험을 보유
- 이에 따라 대형 패널이 적용되는 OLED TV 등에 대한 시장점유율이 높은 엘지디스플레이에 OLED 증착장비 독점공급 중

장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 양산 효율성이 증대된 OLED 증착시스템 개발, 유기물질 사용 효율이 증대된 증착원 개발 등 장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수행
- 주력 제품인 OLED 증착시스템 및 증착원 외에도 척 시스템, 마스크 등 요소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수행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OLED의 양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장비기술 적용

- 척 시스템을 적용하여 기판을 처짐 없이 이송하는 기술, 증발원의 노즐 최적화 설계를 통해 박막 불균일도를 낮추는 기술 등의 핵심기술 제품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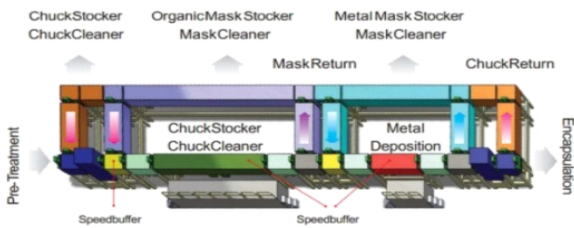
연구개발 실적 및 지표

- 연구개발 투자비율 2017년 6.1%, 2018년 4.2%, 2019년 7.9%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수행
- 증착장비 및 요소기술 관련 국내 특허권 157건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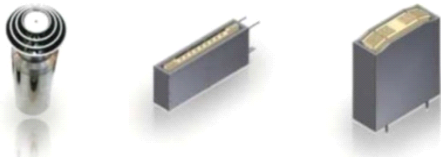
적용제품

주요 제품

OLED 증착시스템



OLED 증착원



매출실적

■ 2019년, 2020년 3분기 매출유형별 비중 (단위: 억 원, %)

매출 유형 및 품목		2019년		2020년 3분기(누적)	
제품 매출	OLED 증착시스템	501.7	57.8	100.6	27.7
	OLED 증착원	222.1	25.6	88.9	24.5
상품 및 용역 매출		144.7	16.6	173.8	47.8
합계		868.5	100.0	363.3	100.0

시장경쟁력

세계 디스플레이 및 장비 시장 현황

- 전방산업인 디스플레이 산업의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디스플레이 장비 산업

(단위: 억 달러)

	2019	2020(E)	2021(E)	2022(E)	2023(E)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규모	1,080	1,155	1,205	1,280	1,322

(단위: 억 달러)

	2019	2020(E)	2021(E)	2022(E)	2023(E)
세계 디스플레이 장비 시장규모	152	150	84	80	127

- 디스플레이 시장은 모바일 기기 등이 사용되는 중소형 패널 부문에서는 이미 OLED가 LCD를 빠르게 대체
- 대형 디스플레이 또한 전력 소모가 적은 OLE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
- 디스플레이 장비 시장은 등락을 반복하나, 최근 중국업체의 장비 투자 수요 증가로 인해 성장세 예상

최근 변동사항

전방 고객사 투자 지연으로 매출실적 감소

- 엘지디스플레이에 대한 매출 의존도 80~90%
- 전방 고객사들의 투자 일정 연기로 2020년 3분기까지 매출 감소세 지속

총 183억 원 규모의 추가 장비 공급계약 체결

- 엘지디스플레이의 국내 및 중국 공장에 각각 98억 원, 85억 원 규모의 장비 공급계약 체결
- 수주잔고의 실적 전환 이후 매출실적 회복 기대

I. 기업현황

대형 OLED 패널 제조용 증착장비 전문업체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동사는 대형 OLED 패널 제조장비 증착시스템 및 증착원과 같은 증착장비를 주력으로 납품하고 있다. 최근 주요 고객사의 장비 투자 일정 연기 등으로 인해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였다.

■ 기업 개요

동사는 OLED 증착시스템 및 증착원 등의 증착장비 전문업체로, 진공장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를 주 사업목적으로 2002년 4월 10일 설립되었다. 설립 초기 1세대 OLED 준 양산라인의 선형 개발을 시작으로, 2010년 고객사인 엘지디스플레이로부터 전략적인 투자와 함께 OLED 증착시스템 관련 장비개발 및 납품을 통해 매출이 급격히 성장하였다. 동사의 주식은 2017년 9월 29일에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 주요 주주 및 관계회사

동사의 2020년 분기보고서(2020.09)에 따르면, 동사의 최대주주는 정광호 대표이사로 동사의 지분 42.58%를 보유하고 있다. 최대주주 이외에는 고객사인 엘지디스플레이가 동사의 지분 15.32%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사의 임원인 강경인 부사장이 0.33%를 보유하여 자본참여를 통해 동사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

동사는 관계회사로 주식회사 단단 및 주식회사 기전을 보유하고 있다. 주식회사 단단은 특수산업용 세라믹 부품 제조 및 개발을 주요 사업부문으로 1998년 11월 설립되었으며, 동사는 주식회사 단단의 지분 15.15%를 보유하고 있다. 주식회사 기전의 경우 특수산업용 체임버 가공을 주요 사업부문으로 2011년 11월에 설립된 동사의 자회사로, 동사가 주식회사 기전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 조직 현황 및 임원 정보

동사의 분기보고서(2020.09)에 따르면, 동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상근 등기임원 3명과 상근 미등기임원 2명, 직원 246명으로 총 251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동사는 2004년 4월 공인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현재 시스템개발, 요소기술, 선행/전략기술 등으로의 기술분류별 업무 분장을 통해 OLED 증착시스템 및 증착원, 솔라셀 증착장비 등의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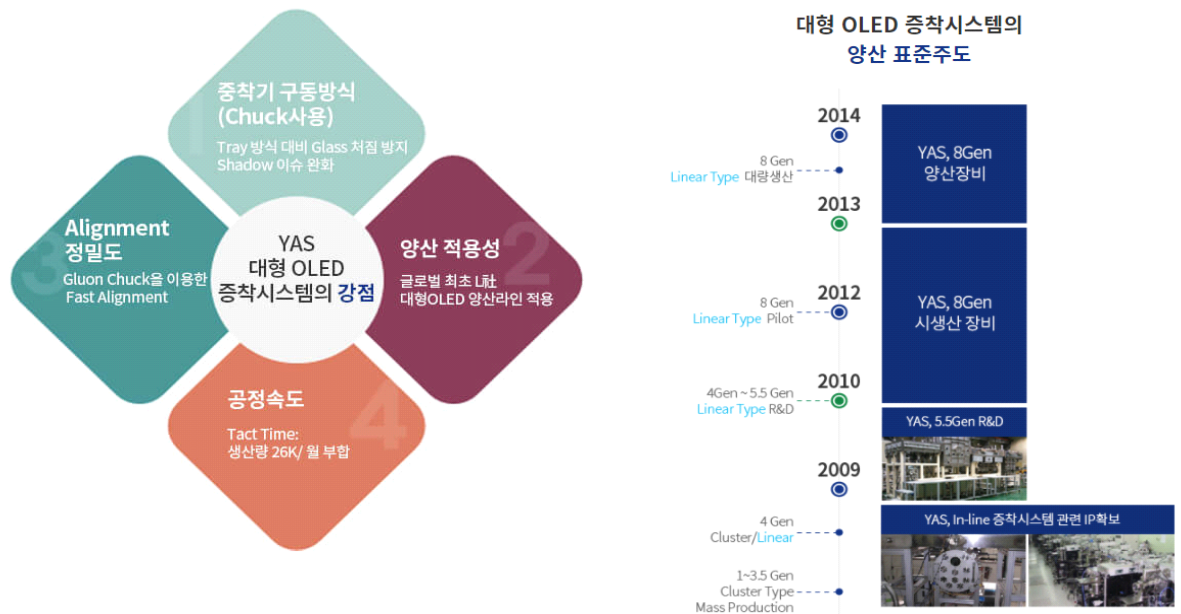
동사의 정광호 대표이사는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정교수로 재직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기물 증착기술에 대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동사를 창업하여 현재까지 동사의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또한, 등기이사인 강경인 부사장, 최명훈 전무이사, 전옥철 전무이사 등 동업종 경력을 보유한 임원진이 경영전략 수립과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동사 제품의 생산을 총괄하고 있다.

■ 주 사업영역 관련 핵심기술 및 주요 제품

디스플레이 관련 설비업체는 일반적으로 LCD와 반도체 제조 관련 다양한 영역의 사업을 고르게 영위하는데, 동사는 OLED에 특화된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다. 동사의 주요 매출은 OLED 증착시스템과 OLED 증착원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제품별 매출 비중은 수주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존재하나 OLED 증착장비의 비중이 대체로 높은 편이다.

OLED 증착시스템은 OLED 제조 공정에서 유리기판에 유기물질을 증착할 때 사용되는 핵심장비이다. 증착이란 진공 상태에서 유기물, 금속 증기를 증발시켜서 패널 기판에 부착시키는 것으로, 동사는 불순물을 방지하고 균일하게 유기물질을 증착시키는 증착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OLED 증착장비 외에도 동사가 주력으로 취급하고 있는 OLED 증착원은 체임버 내 진공 속에서 도가니에 들어있는 박막 제조 대상 물질을 가열하여 증발시키는 장치이다. OLED 증착원은 발광층에 사용되는 유기물 증착원, 전자 이송층 혹은 정공 이송층 등에 사용되는 무기물 증착원, 전극을 형성할때 사용되는 금속 증착원이 있으며, 온도에 따라 저온용/고온용 증착원, 형태에 따라 점형/선형 증착원으로 구분된다.

[그림 1] 동사의 주력 제품인 대형 OLED 증착시스템 관련 소개자료



*출처: 동사 홈페이지

동사의 주력 제품인 대형 OLED 증착시스템은 척 시스템을 사용해 기판의 처짐을 방지하는 핵심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며, 이를 이용해 빠르게 기판을 정렬할 수 있어 공정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동사는 대형 8세대 기판 장비의 양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한 바 있으며, 대형 패널의 양산을 위해 인라인 방식을 적용한 장비를 생산하여 중소형 패널에서 강점을 갖는 경쟁업체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동사는 분기보고서 기준(2020.09) 파주 본공장 내 약 191억 원 규모의 설비 및 부품을 포함한 유형자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증착기와 증착원에 대해 각각 연간 872억 원, 연간 389억 원 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 매출실적 현황

동사는 OLED 증착시스템 및 OLED 증착원 제조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장비 사업은 고객의 공정 사양에 맞춤으로 제작되는 주문생산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동사의 매출은 전방산업인 디스플레이 산업의 장비 투자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수주 상황에 따라 변동의 폭이 큰 편이다.

동사의 분기보고서(2020.09)에 따르면, 동사는 2019년 재무제표 기준 총 868.5억 원의 매출을 시현하였으며, 2020년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액은 2019년 매출액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363.3억 원을 기록하였다. 품목의 경우 2019년 기준 OLED 증착시스템 및 증착원에 대한 제품 매출 비중이 동사 매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동사의 매출을 견인하였으나, 2020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주요 고객사의 장비 투자 지연 등으로 인해 제품 매출 비중이 약 52.2% 정도로 하락하였다.

[표 1] 동사의 유형별 매출액 및 비중

매출 유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3분기(누적)	
		매출액 (억 원)	비중 (%)	매출액 (억 원)	비중 (%)	매출액 (억 원)	비중 (%)	매출액 (억 원)	비중 (%)
제품 매출	OLED 증착시스템	404.3	46.7	1,406.6	76.2	501.7	57.8	100.6	27.7
	OLED 증착원	363.7	42.0	237.0	12.9	222.1	25.6	88.9	24.5
상품 및 용역 매출		97.5	11.3	201.5	10.9	144.7	16.6	173.8	47.8
합계		865.5	100.0	1,845.1	100.0	868.5	100.0	363.3	100.0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0.09), NICE디앤비 재구성

II. 시장동향

OLED의 수요 증가로 성장하는 디스플레이 시장, 중국의 시장 점유율 상승

동사의 목표시장은 전후방 연계 효과가 큰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 시장이다. 디스플레이 시장은 OLED의 수요 증가로 인해 시장 확대가 전망되며, 중국의 정책적 지원 및 생산라인 증설로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의 OLED 장비 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전방산업의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디스플레이 장비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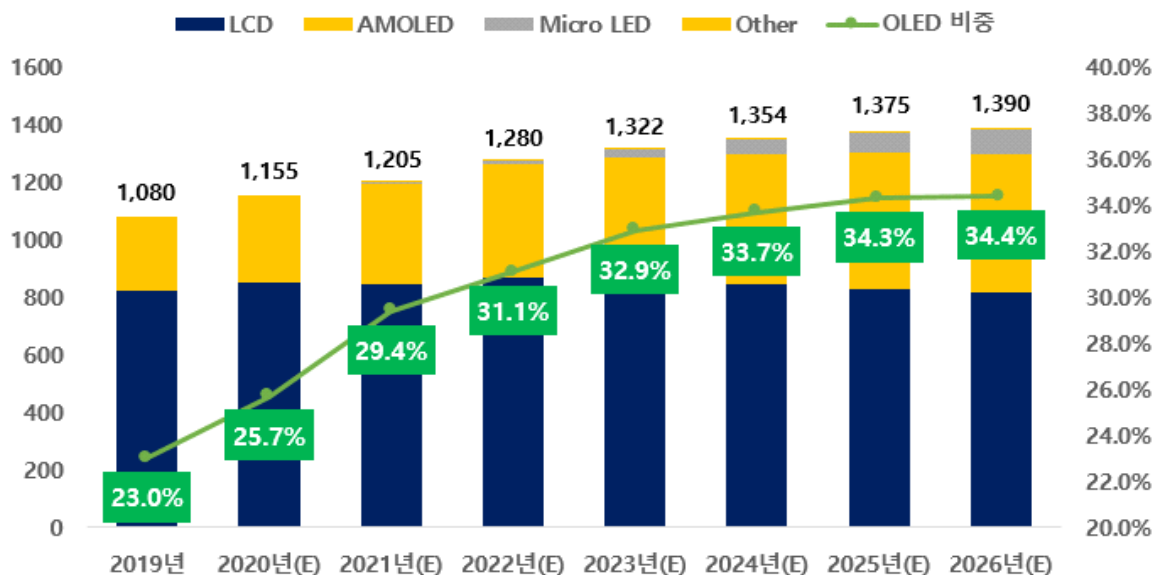
디스플레이 산업은 브라운관 TV의 보급과 함께 본격적으로 성장하였으며, 2000년에서 2015년의 PDP, LCD 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 OLED,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등의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초기 투자 규모가 매우 크고 투자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시차가 존재하고 있지만, 시장 내 주력 제품의 교체 주기가 점차 빨라지는 특징이 있다.

동사는 OLED 공정장비를 주력으로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어, 동사의 매출실적은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산업 동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산업의 전후방산업은 ‘산업용 로봇, 소프트웨어 등 →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 디스플레이’로 구성된다.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는 대표적인 장치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전방산업인 디스플레이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제품의 수요는 장비 투자와 직결되어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이 큰 산업이다.

■ 점차 축소되는 LCD와 이를 대체하며 증가하고 있는 OLED 및 Micro LED 시장

[그림 2]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출처: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디스플레이 시장통계(원출처: OMDIA), NICE디앤비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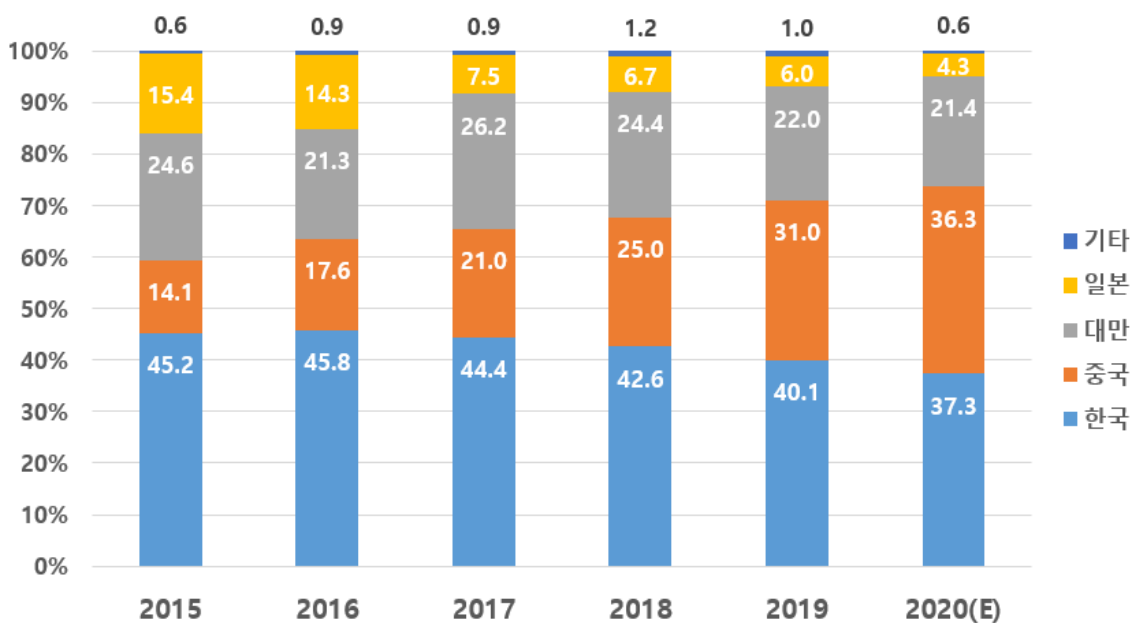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에 게시된 디스플레이 시장자료에 따르면, LCD, OLED 및 Micro LED와 기타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규모는 2019년 1,080억 달러 규모로 집계되었으며, 향후 2026년까지 1,39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이 전망된다. 디스플레이 시장 동향 중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소형 및 대형 패널을 전부 독식했던 LCD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그 자리를 OLED가 차지하고 있는 점이다.

현재까지는 모바일 기기 등 소형 패널에서만 OLED의 비중이 높은 편이나, 향후 기술력 향상 및 원가 절감 등을 통해 대형 패널에서도 OLED가 LCD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또한, 향후에는 OLED에 비해 유기물을 사용하지 않아 수명이 길고, 발광효율이 높으며, 화면 색 발현에 필요한 컬러필터 또는 편광판이 필요하지 않아 디스플레이를 더 얇게 제조할 수 있는 Micro LED 또한 점차 시장점유율이 유의미한 수치로 증가할 전망이다.

■ OLED를 전략산업으로 지정한 중국, 대규모 설비 투자를 통한 점유율 확대 시도

과거 중국 업체의 대규모 LCD 공장 증설로 LCD 시장의 경쟁 강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삼성디스플레이를 필두로 한 국내 업체는 OLED로 방향을 선회하였고, 이로 인해 시장 선점 효과를 창출하며 국내 업체가 세계 OLED 시장을 95%까지 점유하였다. 하지만 LCD 시장의 주도권을 얻은 중국이 COVID-19의 여파를 이겨내기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OLED를 전략산업으로 지정하면서 정책적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중국 업체들은 LCD 외에도 OLED 산업에 대한 대규모 설비 투자를 예고하고 있어 OLED 시장 내 중국의 점유율 또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디스플레이 시장 내 중국 업체의 점유율은 2015년 14.1%에서 2019년 31.0%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36.3%의 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 국가별 디스플레이 시장점유율(출하금액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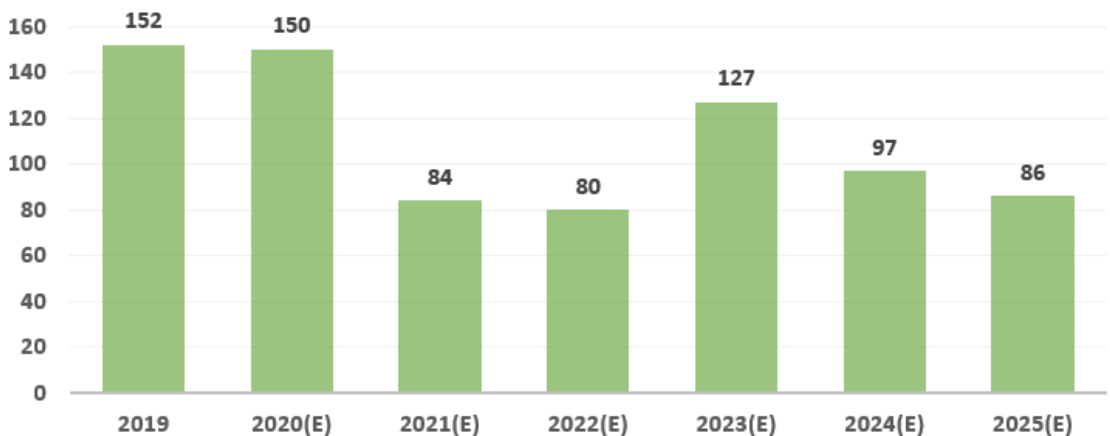


*출처: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디스플레이 시장통계(원출처: OMDIA), NICE디앤비 재가공

■ 디스플레이 산업과 연계되어 등락을 반복하는 디스플레이 장비 시장

디스플레이 장비는 디스플레이의 후방산업으로 디스플레이 산업과 큰 연관성을 지니며, 디스플레이의 수요 증가에 선행하여 장비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산업이 호황을 이루기 전에 장비 산업이 호재를 보이는 특성을 갖는다. 최근 전 모델에 OLED가 탑재된 5G 스마트폰인 아이폰 12가 폭발적 수요로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아이폰에 사용되는 OLED를 납품하는 삼성디스플레이와 엘지디스플레이의 OLED 라인 증설 및 장비 투자로 디스플레이 장비 시장규모가 성장한 바 있다. 2021년 이후에도 미국과 중국에서 OLED가 적용된 프리미엄 제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중소형 패널 외에도 대형 패널 등에서 OLED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응답 속도가 빠르고 전력 소모가 낮아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특화된 OLED 패널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추가적인 장비 투자 수요도 존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 세계 디스플레이 장비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출처: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디스플레이 시장통계(원출처: InformaTech), NICE디앤비 재가공

2021년 이후 LCD 장비 수요 급감에 따라 전체 디스플레이 장비 시장이 2020년 150억 달러 규모에서 2021년 84억 달러 규모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2019년 및 2020년에 증설된 OLED 라인의 신기술 적용으로 인한 교체주기 등을 감안하면 2023년 127억 달러의 규모로 다시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중소형 패널에는 대부분 OLED가 LCD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어 OLED 장비 시장은 대체적으로 호재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나, 전체적인 디스플레이 장비 시장규모는 장비 교체주기에 따라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규제보다는 정책적 지원 및 투자 지속, 대형 패널 특화로 인해 낮은 경쟁강도

동사의 주력 사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디스플레이 산업 및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산업은 국내외적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관련 국가 R&D 과제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로 동사의 영업활동에 정책적인 부정적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동사의 주력 제품인 OLED 증착장비 제조사업 관련 경쟁업체로는 일본 캐논 토키(Cannon Tokki)가 있으며, 국내에는 선익시스템, 에스에프에이, 에스엔유프리시전이 있다.



OLED 증착장비 분야는 주로 일본과 한국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으나 중소형 패널용 장비는 캐논 토키가 양산에 성공하면서 점유율 면에서 앞서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에스에프에이 및 에스엔유프리시전이 중소형 패널용 증착장비를 제작해 해외 디스플레이 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OLED TV와 같은 대형 패널은 동사의 고객사인 엘지디스플레이에서 주로 상용화하고 있으며 엘지디스플레이에 납품되는 대형 패널용 OLED 증착장비는 8세대 장비의 양산에 성공한 동사가 주로 납품하고 있어 경쟁 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Ⅲ. 기술분석

대형 패널용 OLED 증착장비에 대한 다년간의 양산 경험 및 기술력 보유

동사는 엘지디스플레이에 OLED 증착장비를 주로 공급하고 있으며, 대형 패널의 OLED 증착장비 관련 다년간의 양산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양산 효율성 제고 등의 장비 개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하여 OLED 증착시스템 및 증착원 관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 LCD를 대체하고 있는 OLED와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개발되는 QLED, Micro LED

디스플레이는 문자, 사진, 영상 등의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장치로 1950년대 브라운관 TV 보급과 함께 본격적으로 성장하여 1990년대 및 2000년대의 PDP, LCD의 평판 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는 OLED, QLED 및 Micro LED로 발전되어왔다. 디스플레이는 고화질 및 실감(3D) 영상을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더 낮은 전력 소모량, 더 얇은 두께, 더 가볍고 유연하게 개발된 모듈이 각종 센서와 결합되어 복합 입출력 성능을 갖추게 되면서, 디스플레이 장비의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디스플레이의 종류 및 특징

종류 및 개요		특징
CRT (Cathode-Ray Tube)	브라운관 또는 음극선관으로 불리며 전기신호와 전자빔의 작용에 의해 화면을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 공정 및 구동 방식이 간단하고 저렴 화상의 왜곡 방지 및 초점 향상을 위해 일정 두께 이상이 요구되어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무거움
PDP (Plasma Display Panel)	2장의 유리판 사이에 가스 튜브를 배열하고 플라즈마 현상을 유도하여 화면을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색상표현력이 우수하고 화면 응답 속도가 빠르며 잔상이 적고 대형화에 유리 높은 전력 소비량, 냉각팬으로 인한 소음 발생, LCD 대비 짧은 수명, 소형 제품에 부적합
LCD (Liquid Crystal Display)	액정표시장치라고 불리며, 백라이트가 발하는 빛을 규칙적으로 배열한 수많은 패널이 전면에서 조절하면서 화면을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높은 휘도, 낮은 전력 소비량, 응답 속도 개선, 소형/대형 패널 모두 제작 가능, 가격경쟁력 보유 PDP에 비해 장점이 많아 평판 디스플레이의 대표주자로 오랜 기간 사용됨
OLED (Organic Light-Emitting Diode)	전류가 흐르면 스스로 빛을 내는 형광성 유기화합물을 얇게 발라 영상신호를 처리해 화면을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라이트 유닛이 필요하지 않아 더 얇고 전력 소모량이 적으며, 색재현률 및 명암비가 우수하고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구현이 가능 유기물질 수명이 짧아 블루라이트 번인 현상이 발생
QLED (Quantum Dot Light-Emitting Diode)	퀀텀닷(양자점)이라는 수 나노미터 크기의 미세한 입자 자체를 크기를 조절해가며 발광시켜 화면을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OLED에 비해 무기물로 구성된 발광층 사용해 밝기와 수명, 번인 현상에 유리, 색 순도가 높아 더 많은 색 구현 가능, 대화면에 유리 OLED에 비해 명암비, 응답 속도, 전력 소모량이 불리한 단점 존재
Micro LED (Micro Light-Emitting Diode)	칩 크기가 10~100 마이크로미터 수준으로 제작되는 LED를 배열하여 이를 통해 화면을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ED 소자를 사용하여 휘도 및 수명, 응답 속도 면에서 유리,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구현 가능 미세한 LED를 기판에 전사하는 데 높은 비용 소모, 많은 LED 사용으로 불량 화소 발생 시 치명적

*출처: 디스플레이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전자통신연구원(2019.04), NICE디앤비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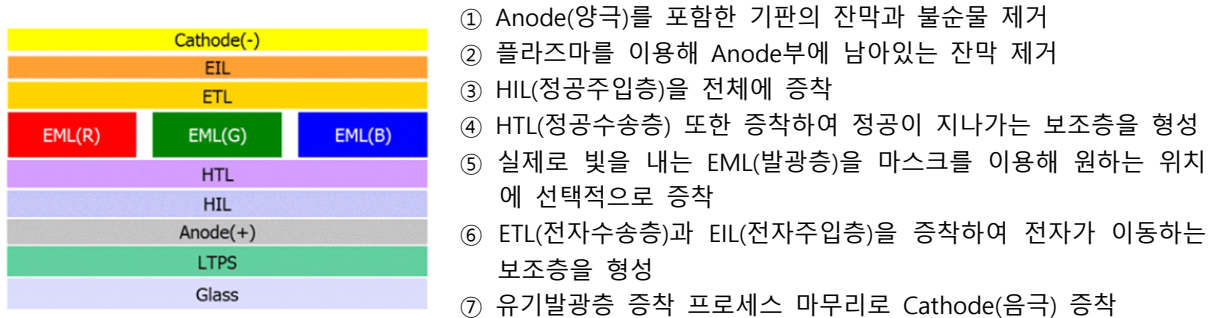
디스플레이 패널 중 최근 가장 주력으로 사용되고 있는 패널은 LCD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OLED의 수율(결함이 없는 합격품의 비율)이 LCD에 비해 낮아 가격대가 고가를 형성하고 있어 대다수의 패널에는 LCD가 사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OLED가 LCD에 비해 전력 소모량이 적고, 광원인 백라이트 유닛(Back Light Unit, 이하 BLU)이 필요 없으며, 시야각이 넓어 어느 각도에서도 동일한 색 재현력을 가지고, 응답 속도가 빠른 장점을 가지고 있어 스마트폰과 같은 중소형 패널 부문에서 LCD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중소형 패널 대비 장시간 사용되는 대형 패널의 경우, 특유의 유기물질 수명 문제로 인해 OLED의 사용이 다소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차세대 OLED 또는 QLED, Micro LED와 같은 패널들이 개발되고 있다.

■ 디스플레이 제조의 핵심 공정인 OLED 증착 공정

OLED는 유기물층 속에 있는 정공(Hole)과 전자(Electron)가 유기물 사이의 발광층에서 만나 안정화를 이루면서 발광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화면을 출력한다. LCD는 BLU를 이용해 발하는 빛을 컬러필터를 통해 색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명암비와 색 재현률이 낮으며, 두께가 두꺼워지는 반면, OLED는 한 픽셀 내에 배치된 LED의 자체 발광과 삼원색의 조합을 통해 적색, 녹색, 청색 외 다양한 색을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OLED의 제조를 위해서는 기판 위에 필요한 물질을 쌓아나가는 적층 방식을 사용한다. 우선 전류를 흐르게 할 기판에 박막 트랜지스터(Thin Film Transistor)를 형성하고, 전류에 따라 빛과 색을 발하는 역할을 할 유기물층을 쌓고, 그 위에 산소와 수분으로부터 유기물층을 보호하기 위한 글라스를 덮어 봉지하는 것이 기본적인 공정이다. OLED는 BLU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LCD에 비해 공정 흐름이 간략한 특징을 보이는데, OLED의 가장 핵심적인 공정은 색을 표현하는 기능을 수행할 유기물층을 형성하는 증착 공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 OLED 패널의 구조 및 유기물 증착공정 진행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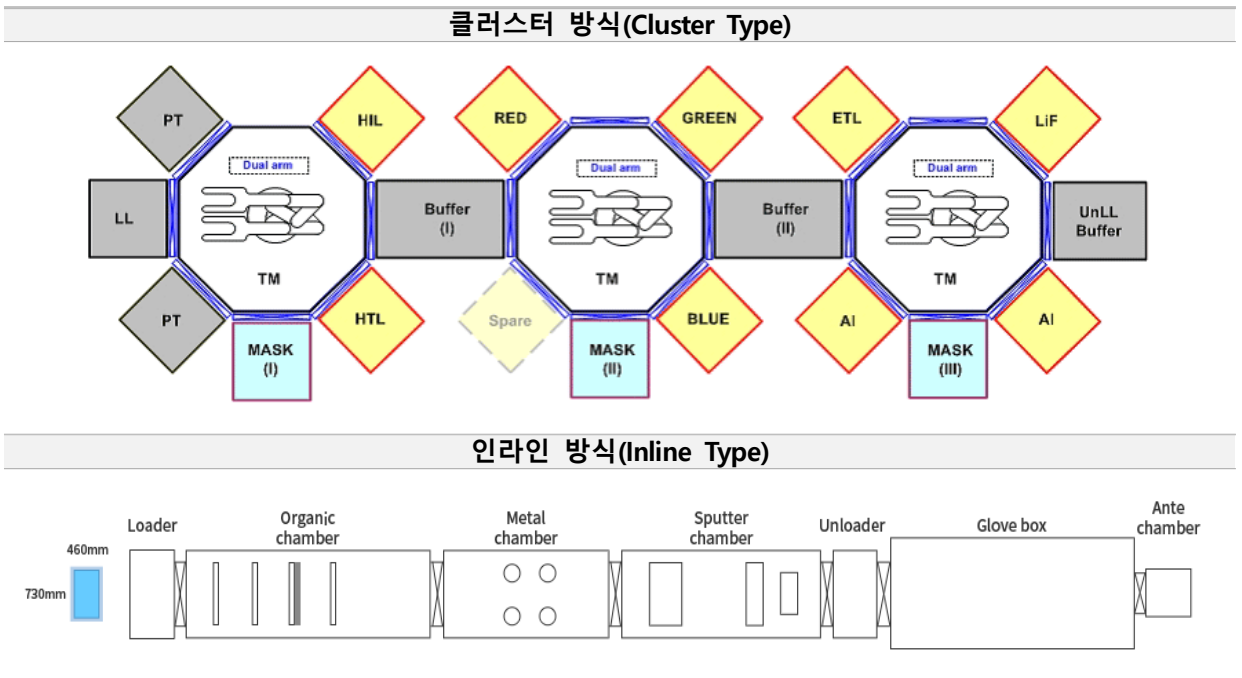


*출처: 삼성디스플레이 뉴스룸 홈페이지

■ 대형 패널의 양산에 최적화된 인라인 방식의 OLED 증착시스템 기술 보유

동사의 OLED 증착시스템은 중소형 패널에 적합한 클러스터 방식이 아닌 인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형 패널에 적합하도록 구성되는 특징이 있다. 클러스터 방식은 공정 체임버 둘레에 복수의 체임버가 붙어있어 기판이 하나씩 이동되며 증착하는데 비해, 인라인 방식은 공정 체임버 양쪽에 체임버들이 하나의 라인으로 구성되어 기판이 흐르듯이 지나가며 증착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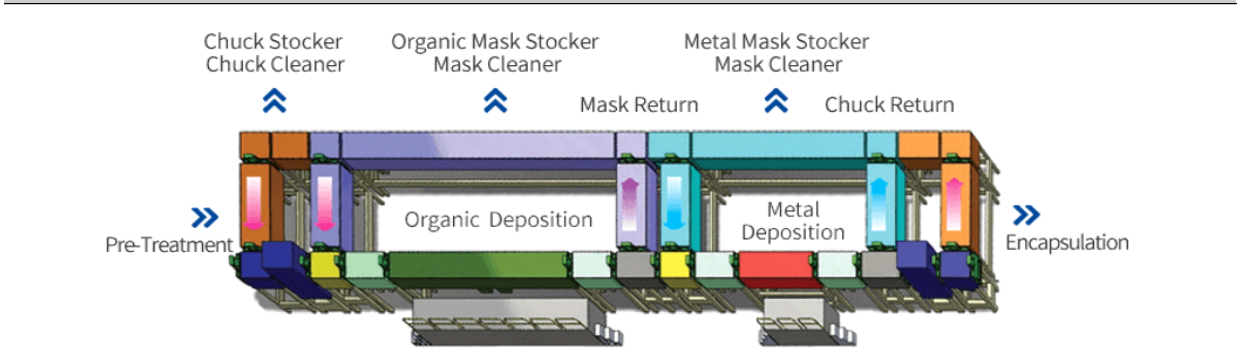
[그림 6] OLED 증착시스템에서의 클러스터 방식 및 인라인 방식 개념도



*출처: 선익시스템 홈페이지

클러스터 방식의 경우, 한 클러스터에 이송된 기판이 각각의 공정 챔버에 돌아가면서 증착을 수행한 뒤 다음 클러스터로 넘어가게 되며, 인라인 방식은 기판이 일렬로 배치된 이송 및 공정 챔버를 통과하면서 증착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인라인 방식은 이송될 기판이 크고 무거운 대형 패널용으로 용이하게 사용이 가능하며, 챔버의 구조가 단순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동사는 대형 OLED 패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인라인 방식의 OLED 증착시스템을 개발하여 상용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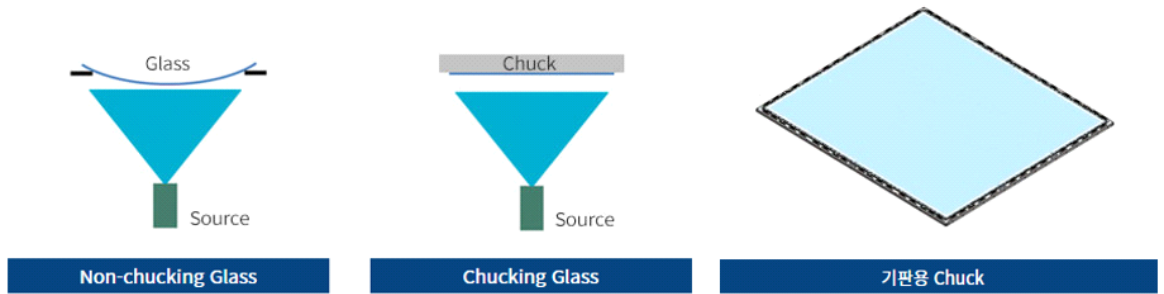
[그림 7] 동사의 OLED TV용 인라인 증착시스템



*출처: 동사 홈페이지

동사의 OLED TV용 인라인 증착시스템은 위 그림과 같이 좌에서 우로 기판이 이송되면서 한 라인을 따라 증착이 이루어진다. 첫 번째 구역에서 세정된 기판 이송장치가 기판을 공정 챔버로 이동시켜 유기물을 증착시키며, 두 번째 구역인 금속 증착 공정 챔버로 기판을 이동시켜 금속 증착을 수행한 뒤 봉지(Encapsulation) 공정장비로 보내게 된다. 여기에서 기판을 고정하는데 사용된 척(Chuck)과 비증착 부분을 가리는데 사용된 마스크(Mask)는 세정된 뒤 다시 앞단으로 돌아가 재사용되는 방식으로 생산이 진행된다.

[그림 8] 동사의 OLED 증착시스템에 적용된 척 시스템



*출처: 동사 홈페이지

동사의 OLED 증착시스템에는 크고 무거운 대형 패널의 특성에 최적화된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다. 특히, 척 시스템은 증착공정 수행 시 무거운 대형 글라스가 휘어지면서 소스가 정확한 위치에 증착되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동사의 기술이며, 기판용 척은 글라스의 뒤에서 글라스의 처짐을 방지하여 정확한 위치에 증착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척 시스템 외에도 증발원의 온도와 증착 속도를 제어하고 모니터링하는 XTR 장비, 고진공 환경에서 수정 진동자를 이용해 유기 및 무기 물질 증착량을 측정하고, 센서의 정확한 위치를 결정해 장비가 운전하도록 하는 QCM 장비 등이 대형 패널의 양산에 최적화된 증착시스템을 위해 동사의 제품에 구성되어 있다.

■ 유기물질 사용 효율을 최대화한 OLED 증착원 기술 보유

OLED 제작을 위해서는 유기물 혹은 금속을 기판에 얇게 코팅하여 다층 박막을 형성해야 한다. 증착공정에 사용되는 유기물을 가열하여 증발시키는 장치를 증착원 또는 증발원이라고 하며, 동사는 증착원과 관련하여 박막 균일도와 물질 사용 효율을 제고하여 양산성을 확보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표 3] 동사의 증착원 제품군 및 특징

CNS (Circular Nozzle Source)	LNS (Linear Nozzle Source)	C-LNS (Compact Linear Nozzle Sour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D 고정형 증착원 ▪ 높은 물질 효율 ▪ 마스크 웨도우 영향 최소화 ▪ 고해상도 OLED 소자 생산에 최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까운 기판, 증착원 거리 ▪ 빠른 증착 속도 및 높은 증착 재료 효율 ▪ 오픈 마스크가 적용되는 증착시스템에 최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즐 구조를 가진 선형(Linear) 증착원 ▪ 기존 선형 증착원의 높은 물질 효율 유지 ▪ 마스크 웨도우 및 기판 열전달 최소화 ▪ 모바일 OLED 생산에 최적화

*출처: 동사 홈페이지, NICE디앤비 재구성

현재 OLED 생산에 사용되는 가장 큰 기판은 8세대 기판으로, 8세대 기판은 박막 두께 불균일도가 2% 미만으로 요구되고 있다. 동사는 증발원의 노즐 디자인에 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2% 수준의 박막 불균일도를 달성하여 8세대 OLED 생산에 투입하고 있다. 또한, OLED 증착에 사용되는 유기물들은 특수하게 합성된 물질로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OLED의 생산원가에서 14%에서 24%를 차지하고 있다. OLED 제조업체는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유기물질의 사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증착원을 채택하는데, 동사는 증착원의 최적화 설계를 통해 물질 사용 효율 70%를 달성하였다.

이외에도 동사는 대형 패널용 장비에 대한 연구개발 및 양산 경험을 통해 대형 기판의 균일도를 생산시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하는 기술, 생산 준비 시간을 최소화하는 기술, 기판 및 마스크에 열적 손상을 최소화하는 기술, 마스크를 이용한 패턴 형성 시 마스크 웨도우로 인한 색의 혼합을 최소화하는 기술 등 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장비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장비기술 관련 연구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제품 개선 추진

동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부 R&D 사업 연구과제를 수행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동사는 OLED TV 양산을 위해 증착 폭이 2m를 넘도록 개발한 ‘8세대 2분할 OLED용 Metal 증발원 기술’, 고해상도 구현을 위해 증발원의 웨도우를 최소화한 ‘고해상도 OLED용 3.5세대 리니어 소스 기술’, 대면적 기판의 용이한 박막 두께 측정을 위한 ‘QCM 기술’ 등을 자체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상용화하였다.

또한, 동사는 보유한 셀렌화 소스 및 장비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구리 인듐 갈륨 셀레늄 태양전지(Copper Indium Gallium Selenide Solar Cell, 이하 CIGS) 기술개발을 주관하였다. 동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동사는 롤투롤 전착장비, 롤투롤 셀렌화 장비의 공정 효율 조건 확보를 위한 모듈 제작을 완료하였으며, 유연기판 박막 태양전지용 장비기술의 국산화를 위한 상용화 기틀을 마련하였다.

[표 4] 동사의 정부 R&D 사업 수행 실적

사업명	연구과제 개요
산업통상자원부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2014.11.01 ~ 2017.10.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면적 AMOLED 증착을 위한 금속 선형 증발장치 개발을 목적으로 엘지디스플레이와 연세대학교가 참여 - 8세대 금속 선형 증발원을 개발하고, 대형 선형 증발원에 대한 해석을 통해 상용화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대면적 패널의 단가 절감을 통한 장비 산업 경쟁력 확보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2015.06.01 ~ 2018.08.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경량 유연 CIGS 박막 모듈 공정장비 상용화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다스텍,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및 청주대학교가 참여 - 유연 기판 박막 태양전지용 장비 기술개발을 통해 CIGS 증착뿐만 아니라 유연 CIGS 생산 공정 시스템의 국산화 달성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0.09), NTIS 홈페이지, NICE디앤비 재구성

동사의 연구개발비는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7년 52.5억 원, 2018년 76.5억 원, 2019년 68.4억 원 규모로 집계되었으며, 2020년에는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45.6억 원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였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인 연구개발 투자비율은 매출액 변동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3개년간 평균 6% 정도의 비율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으로 장비 관련 제반 기술과 장비에 적용되는 요소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사는 주요 사업과 관련하여 ‘점착적의 점착 시트 교체를 위한 자동화 시스템’, ‘면 증발원을 적용한 다목적 증착 시스템’ 등 157건의 등록특허와 2건의 상표권을 등록하여 기술과 산업재산을 보호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균등 증발원’ 등을 포함한 5건의 특허를 출원하여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표 5] 동사의 연구역량 지표

연구개발투자비율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3분기
매출액(억 원)	865.5	1,845.1	868.5	363.3
연구개발비(억 원)	52.5	76.5	68.4	45.6
연구개발 투자비율(%)	6.1	4.2	7.9	12.6
지식재산권 현황	등록특허	출원특허	상표권	
실적(건 수)	157	5	2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12) 및 분기보고서(2020.09), KIPRIS 홈페이지, NICE디앤비 재구성

■ 대형 패널용 OLED 증착장비에 대한 양산 경험 및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고객사의 장비 투자 지연으로 매출 안정성 저하, 제품 및 판매처의 다각화 필요

[그림 9] SWOT 분석



IV. 재무분석

전방산업에서의 설비 투자 연기 등으로 실적 감소 지속

전방 고객사들의 설비 투자 연기 등으로 인해 2019년 매출 외형이 축소되었고, 2020년에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 특수관계사인 엘지디스플레이에 대한 높은 매출 의존도

동사는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로 OLED 디스플레이 패널 제작을 위한 장비 중 증착공정 장비에 속하는 증착시스템과 증착원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다. 2019년 기준 매출 비중은 증착시스템 57.8%, 증착원 25.6%로 대부분의 매출이 상기 제품을 통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외 장비개조 용역 및 부품판매를 통해 16.6%의 매출이 발생하였다.

한편, 동사의 주요 거래처인 엘지디스플레이는 동사 지분의 15%를 보유(2020년 9월 말 기준)하고 있는 특수관계사이며, 최근 3년간 동사의 엘지디스플레이향 매출 비중은 80~90% 정도로 단일 거래처에 대한 높은 매출 의존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6]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K-IFRS 연결기준)

항목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3분기	2020년 3분기
매출액	865.5	1,845.1	868.5	728.4	363.3
매출액증가율(%)	4.3	113.2	-52.9	-37.1	-50.1
영업이익	177.5	442.1	125.5	122.5	9.5
영업이익률(%)	20.5	24.0	14.4	16.8	2.6
순이익	162.4	360.3	163.2	162.1	110.0
순이익률(%)	18.8	19.5	18.8	22.3	30.3
부채총계	194.8	962.3	633.7	741.4	337.9
자본총계	1,066.7	1,403.4	1,506.3	1,502.7	1,597.9
총자산	1,261.5	2,365.8	2,140.0	2,244.1	1,935.8
유동비율(%)	509.4	212.6	275.7	218.3	310.1
부채비율(%)	18.3	68.6	42.1	49.3	21.1
자기자본비율(%)	84.6	59.3	70.4	67.0	82.5
영업현금흐름	121.4	318.6	301.5	391.2	140.5
투자현금흐름	-552.2	-337.4	-247.9	-330.7	-120.0
재무현금흐름	303.5	-28.8	-55.0	-52.8	-23.6
기말 현금	68.0	15.7	14.3	23.3	11.3

* 분기: 누적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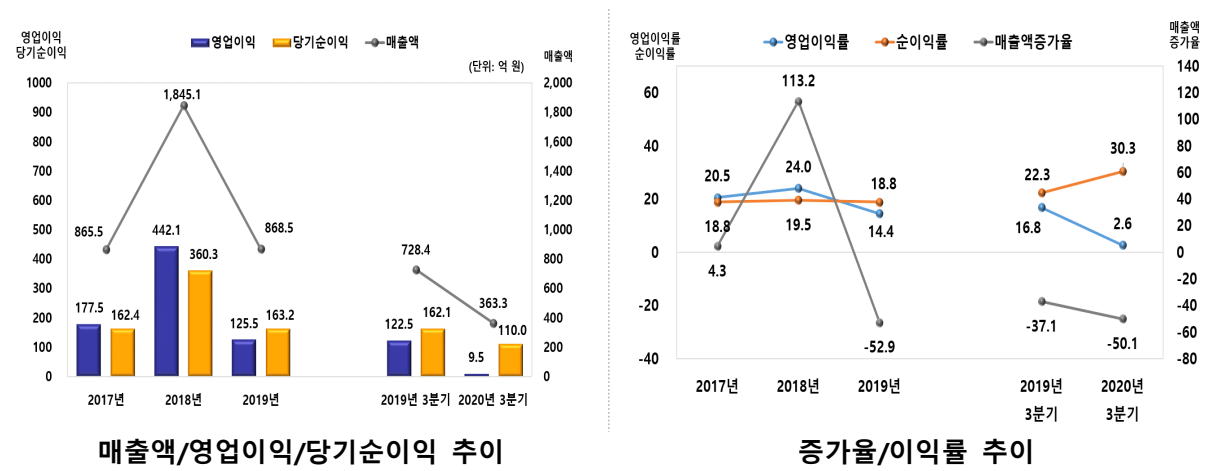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12), 동사 분기보고서(2020.09)

■ 전방산업에서의 설비 투자 연기로 2019년 매출외형 축소

동사는 국내외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업체들의 대형 OLED 투자 확대에 따른 수주물량 증가로 2018년 1,845억 원(+113.2% YoY)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현격한 매출 외형 확대를 보였다. 그러나, 2019년 전방산업 고객사들의 투자 감소 및 연기 등으로 수주량이 감소함에 따라 2019년 869억 원(-52.9% YoY)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예년 수준으로 매출 외형이 축소되었다. 특히, 2018년 1,692억 원에 달하던 엘지디스플레이향 매출이 2019년 702억 원으로 58.5% 감소한 점이 동사의 매출 규모 축소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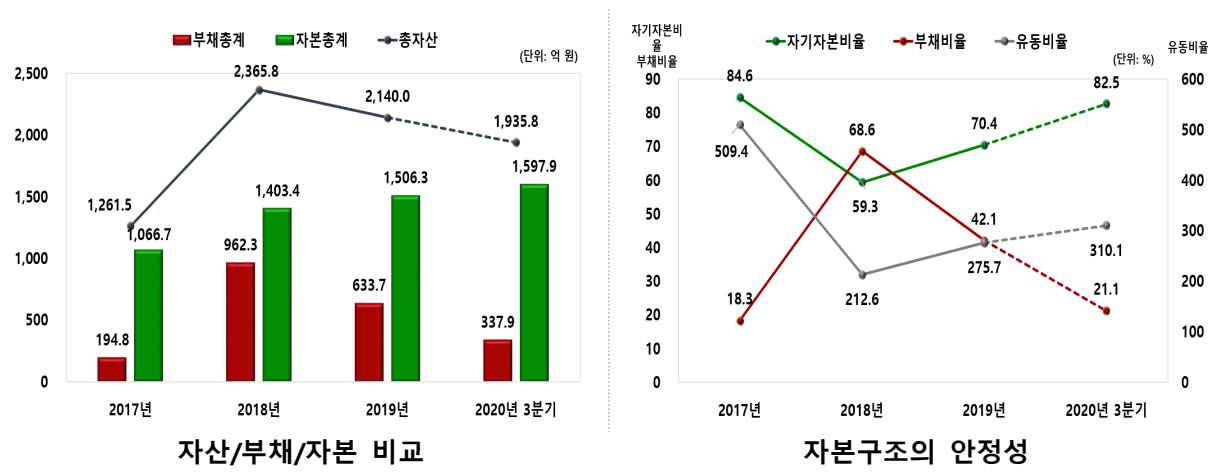
매출 감소에 따른 고정비 부담 확대로 2019년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하락한 14.4%(-9.6%p YoY)를 기록하였다. 다만, 외환차익의 증가 등에 따른 영업외수지 흑자폭 확대로 순이익률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18.8%(-0.7%p YoY)를 기록하는 등 동사의 2019년 주요 수익성 지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림 10]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12), 동사 분기보고서(2020.09), NICE디앤비 재구성

[그림 11]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12), 동사 분기보고서(2020.09), NICE디앤비 재구성

■ 전방산업 투자 지연으로 2020년 3분기(누적) 실적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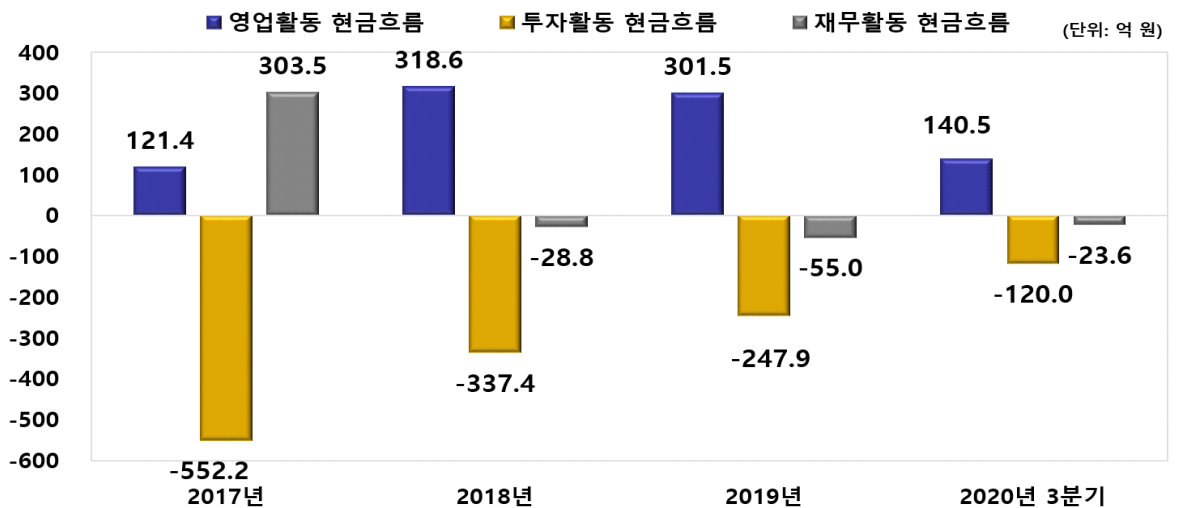
동사는 2020년에도 고객사들의 투자 지연 등에 따른 장비 수요 둔화로 증착시스템과 증착원의 매출 감소가 이어지며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363억 원(-50.1% YoY)을 기록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그 규모가 감소하였다. 한편, 매출 규모 감소로 인한 영업비용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2.6%(-14.2%p YoY)를 기록하며 영업수익성 저하를 보였으나, 외환차익의 증가 등에 따른 영업외수지 흑자폭 확대로 인해 순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30.3%(+8.0%p YoY)를 기록하였다.

■ 2019년 영업활동현금흐름은 전년과 비슷한 규모 유지

동사는 매출 감소로 순익 규모가 감소한 가운데, 감가상각비 등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의 가산과 순운전자본의 감소에 따른 운전자금 부담 완화로 인해 2019년 영업활동현금흐름은 301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과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였다. 상기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현금으로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등 투자활동 현금유출과 배당금 지급 등 재무활동 현금유출을 대부분 충당하는 현금흐름을 보였다. 추가적인 현금유출은 보유 현금으로 충당함에 따라 동사의 현금성 자산은 기초 16억 원에서 기말 14억 원으로 그 규모가 소폭 감소하였다.

[그림 12] 동사 현금흐름의 변화

(단위: 억 원, K-IFRS 연결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12), 동사 분기보고서(2020.09), NICE디앤비 재구성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고객사 투자 지연으로 매출실적 감소, 추가 공급계약 체결로 실적 회복 가능성 기대

현재 동사는 대형 패널 수요 고객사의 설비 투자 지연 등으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2020년 체결한 183억 원 규모의 추가 공급계약이 2021년 매출실적으로 전환될 경우 실적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20년 3분기(누적)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

전방 고객사들의 설비 투자 지연 등에 따른 장비 수요 둔화로 동사는 2020년 3분기 누적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며 2019년에 이어 매출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대형 OLED를 독점하고 있는 엘지디스플레이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80~90%에 달하고 있어 엘지디스플레이로부터의 수주량 변동에 따라 동사의 매출이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엘지디스플레이의 OLED 투자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동사의 매출이 감소 추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 주요 고객사인 엘지디스플레이와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추가 공급계약 체결

2019년 3월 7일 공시한 엘지디스플레이향 189억 원 규모의 공급계약에 대한 납입 일정이 2021년 8월 31일로 연기된 상황에서, 동사는 2020년 9월 9일 2019년 매출액의 약 11.28%에 해당하는 98억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장비에 대한 추가 공급계약을 공시한 바 있다. 이번 공급계약의 납입 일정은 2021년 6월 1일로, 기존 연기되었던 장비 공급과 동시에 해당 계약 건 또한 납품이 진행될 예정이나 일정 지연 여부에 따라 매출실적 전환은 변동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2020년 9월 21일 공시된 엘지디스플레이의 중국 공장에 납품될 장비 공급계약은 2019년 매출액의 약 9.84%에 해당하는 85억 원 규모이며, 계약기간은 2020년 9월 18일부터 2020년 12월 15일로 2021년 상반기 매출실적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다. 동사 분기보고서(2020.09)에 따르면 2020년 9월 30일 기준 수주잔고는 341억 원 규모로, 2021년 상반기 이후 매출실적으로 전환될 경우 실적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증권사 투자의견

최근 1년 내 증권사 투자의견 없음